

공연시설의 스페이스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적 연구

A Basic Study on the Space-Program in Performance Facilities

황미영* / Hwang, Mee-Young

고재민** / Ko, Jae-Mi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pace composition and the construction system of performance facilities, and research the area construction ratio of each necessary space to establish the specialized performance facilities. This study aims the exclusive facilities for opera among the various performance facilities at home and abroa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 1) Performance space is divided into Public space, Performance space and Administration space on the basis of user.
- 2) The difference in the scale of performance facilities depends on the fractionation of performance supporting facilities and the grade of specialty rather than the number of seats.
- 3) The scale and zoning of space in the performance facilities to be buil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suring the production support space, the organic connection of support space and the integrated public space.

키워드 : 공연시설, 공연공간, 스페이스프로그램

Keywords : Performance facilities, Space-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인프라 확충, 다양한 공연물의 기획과 유치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공연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의 중심 가치로 부각되어 삶의 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고품질의 문화시설 건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공연 예술 관련 시설의 현상은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현대적 장르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성과 효율적 합목적성과 체계적인 공간의 구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전문공연시설의 전속 공연단체가 부족하여 공연시설의 활용은 주로 이미 기획된 국내·외의 유명공연물을 유치하는 형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를테면 박물관·미술관에 있어 외부의 기획전시를 유치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며 상설전과 같은 자체 기획된 창작 공연물이 부족한 경우 임대갤러리와 같은 개념의 공연대여시설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¹⁾. 그러나 향후 문화 산업의 발전과 전개에 따라 공연단체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공연장의 장르별 소속단체를 고려한 창작기획이나 실험공연, 리허설, 무대배경제작의 창의성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설의 건립과 기존 공연문화시설의 리모델링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해외사례의 경우 공연장의 객석부문에 대한 규모와 시설수준은 국내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지원시설부문은 국내의 경우 상당부분 취약한 상황이며 이러한 공간적 갭(gap)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할 수 있다. 최근 공연지원 시설이 강화된 선진적 사례로서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 동경신 국립극장, 러시아 볼쇼이국립극장 증개축공사, 러시아 마린스키

1) 공연장은 프로듀싱씨어터(Producing Theater)와 논프로듀싱씨어터(Non-Producing Theater)로 구분된다. 프로듀싱씨어터는 자체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그 레퍼토리 위주로 운영하는 극장을 말하며 외국의 전통적인 유명극장들이 주로 취하는 방식이다. 논프로듀싱씨어터는 작품 제작보다는 유통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극장이며 단순히 극장을 대관하거나 외부의 단체나 제작자와 협력하여 공연물을 기획, 제작하여 무대에 올리는, 상주공연단체나 전속단체를 가지지 않은 극장들이 주로 취하는 방식이다.(임채진 외,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 야외음악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5.8)

* 정회원, 동양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극장 계획안 등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 공연시설들과 국내의 시설을 비교하여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적인 공연시설의 스페이스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현재 건립되어있는 국·내외 대표적 공연시설의 사례를 통해 공연시설의 소요공간과 면적·규모 등을 파악하고 사례공연시설에 대한 포괄적 공간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공연시설 중 오페라전용시설이면서 콘서트 혹은 심포니 등 다목적 공연의 목적을 가진 시설을 포함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연종목, 규모, 객석과 무대, 운영방식 등에 있어 전용공연시설을 대표하는 대형사례들을 중심으로 채택하였다.²⁾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공연시설의 공간구성 및 구성 체계, 각 소요 공간별 면적구성비, 공연공간의 물리적 구조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연시설의 공간의 조닝과 스페이스프로그램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2. 공연시설의 개념과 공간구성의 이론적 고찰

2.1. 공연시설의 개념

공연시설은 공연예술(Performing Art)³⁾의 상영과 그 예술의 미를 음미함을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건설된 건축물 즉 연극, 오페라, 무용, 음악, 영화를 공연, 관람하기 위한 건물의 총칭이다. 또한 무대예술의 창조와 보급 장소이며 무대예술이 관객과 만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극장은 극의 상영과 관람을 위한 무대와 객석, 관리자실, 분장실, 그 밖의 제설에 의해 구성된다. 공연시설은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작품의 상연에 적합한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현대에는 전용극장 이외에 시민회관이나 문화센터의 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인 무대나 설비를 갖는 공연시설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2.2. 공연시설의 공간구성 및 구성체계

공연공간은 크게 전면부(Front)와 후면부(Backstage)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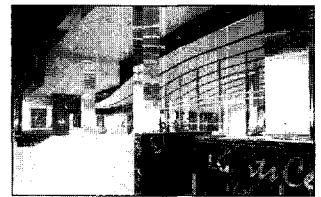
2) 1970년대 이후의 국공립공연시설 중 평·단면 및 부대시설(리허설룸, 연습실, 분장실, 하치장 등)과 같은 비공개영역의 상세한 도면정보가 취득 가능한 대규모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3) 연극, 오페라, 발레, 연주 등을 말하며 고대·농경 및 수렵사회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서양의 그리스·발코스 및 디오니소스제전, 우리나라 고구려의 영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공연예술은 과거의 제전으로부터 시, 음악, 무용, 연극의 총체예술(Total Arts)로서 현재 생활의 문화와 더불어 여러 개의 예술 분야로 독립하여 발전되어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전면부에는 객석과 관객 서비스 시설이 포함되고 후면부에는 무대, 부대시설 및 공연준비시설이 들어간다. 관리사무실은 전·후면부 모두 올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공연공간을 사용자에 의해 분류하면 공공서비스영역(Public Space), 상연영역(Performance Space), 관리·사무영역(Administration Space)으로 볼 수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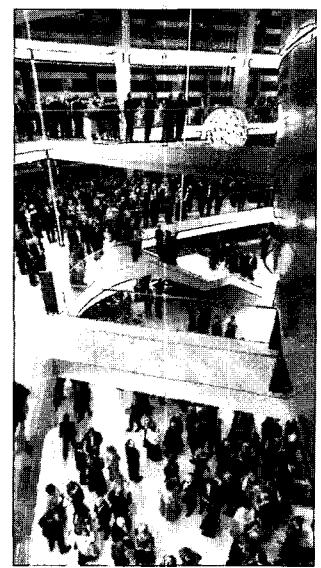
(1) 공공서비스영역 (Public Space)

공공서비스 영역은 주로 관람객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다시 순수 공공서비스 부문과 문화 서비스 부문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림 1> 매표소(LG아트센터)

1) 순수공공서비스부문; 시설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로비나 포이어(foyer) 공간을 이루는 곳이다. 여기서는 관객의 Checking, 보관, 휴게 및 대기, 리셉션, 전시, 안내 및 공연홍보 등과 같이 그 역할이 다양하며 입구에서 객석까지의 사이에 관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이 배치된다. 또한 입구 홀, 로비, 라운지, 흡연실,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주방, Shop, Gift Shop, 화장실, 공연안내실, 휴대품 보관소, 매표소, 어린이 놀이방, 전화/우편예약부스, 복도, 계단 등이 포함된다.



<그림 2> 로비(코렌하겐오페라하우스)

2) 문화서비스부문; 비공연 시에 일반 도시민의 쉼터로 이용되고 공연 시 관람객의 대기공간으로서 적극 이용된다. 정보전달과 홍보의 목적을 가지며 현대 공연장에 널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부문에서는 공연예술아카데미, 악기전시실, 의상전시실, 음악전문 도서실, 멀티미디어실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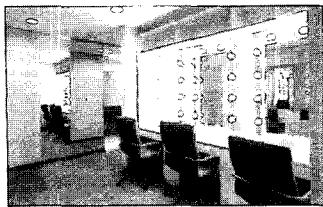
(2) 상연영역(Performance Space)

상연영역은 극장의 중심이 되는 무대와 객석이 있는 부문으로 일반적으로 관객부문과 공연부문, 공연지원 부문, 제작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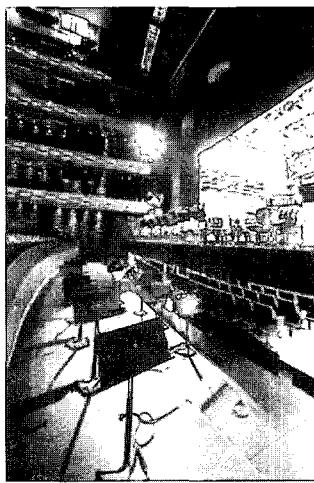
1) 관객부문; 객석이 주를 이루며 객석에도 메인객석, 발코니객석, 장애인전용객석, VIP룸 등으로 구성된다.

2) 공연부문; 객석과 마찬가지로 극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

4) 공연공간의 분류는 참고문헌 N.1~N.19 및 분석사례·대상관 9개관, 그리고 최근 20년간 건축지전문서적 등에 도면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된 76개 사례들의 도면을 종합 고찰한 결과 위와 같은 주요 실의 분류와 구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 분장실(LG아트센터)



<그림 4> 오케스트라피트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

장실, 주연분장실, 지휘자 분장실, 조연부장실, 엑스트라분장실, 무용수 분장실, 오케스트라 분장실, 헤어 분장실, 락카룸, 오케스트라 대기실, 출연자 대기실 (주/조연), 보조대기실, 출연자

<표 1> 공연시설의 일반적인 공간구성 및 체계

대영역	세부영역		소요 공간
공공 서비스 영역 (Public Space)	순수 공공서비스 부문		엔티리스홀, 로비, 리운지, 흠연실,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주방, Shop, Gift Shop, 화장실, 공연안내실, 휴대품보관소, 매표소, 어린이 놀이방, 전화/우편예약부스, 복도, 계단
	문화 서비스 부문		악기전시실, 의상전시실, 음악전문 도서실, 밀티미디어실
상연 영역 (Performance Space)	공연 부문	관객부문	메인객석, 밸코니객석, 장애인용 객석, VIP룸
		공연 공간	좌·우측무대, 후무대, 다목적 리허설룸(실험극장), 지원무대, 무대 격납고, 메인stage, 워크체인저룸, 오케스트라 피트, 오케스트라 피트 전실
		연습 공간	빌레 리허설룸, 공연전 리허설룸, 주연연습실, 조연연습실, 합창단연습실, 무용단연습실, 연극연습실, 오페라 연습실, 오케스트라 연습실
		출연준비 및 분장 공간	합창단분장실, 연기자분장실, 악장분장실, 주연분장실, 지휘자 분장실, 조연분장실, 엑스트라분장실, 무용수 분장실, 오케스트라 분장실, 헤어분장실, 리카실, 오케스트라대기실, 출연자 대기실(주/조연), 보조대기실, 출연자로비
		공용공간	공연자 전용출입구, 사워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출연자휴게실
	공연지원 부문	서비스 지원 공간	제작소, 의상/소품 수선실, 의무실, 수선 및 유지실, 미술실, 의상창고, 소품창고, 악기창고, 무대비품 창고, 좌석창고, 악보자료실, 조명기기실, 음향기기실, 피아노 창고, 도구창고
		기술 지원 공간	무대감독실, 무대 조감독실, 무대스텝실, 기사 대기실, 무대경비실, 전기기사 작업실, 통합조정실, 엠프실, 디머실, 영상실, 사이드 조명실, 무대기계조정실, 무대기계판넬실, 투광실, 아니운서 부스, 방송준비실, 녹음실, TV중계실
		공용 공간	화장실, 공용복도
	제작부문 (Production Space)	디자인계 공간	제작 매니저실, 제작사무실, 디자인실, 디자인스튜디오/자료실, 의상디자인실/자료실, 조명디자인실, 무대 배경디자인실, 사진촬영실, 미술실
		제작계 공간	의장류 저료창고, 의장제작실, 모자제작실, 가발/신발제작실, 가봉실, 염색실, 스프레이실, 건조실, 의장류 창고, 의장류제작장실, 소품제작장실, 소품제작장, 소품제작실, 사진촬영실, 소품창고, 플라스틱실, 철공실, 수선 및 유지실, 소품제작장실, 배경제작장, 배경조립실, 목공실, 비치장, 도장실, 건조실
		공용 공간	트럭하이장, 하해실, 정리실, 포장실, 세척실, 하역장사무실, 사워실, 화장실, 공용복도
관리·사무 영역 (Administration Space)	관리부문	공연관리부문	관장실, 오페라단사무실, 오케스트라단사무실, 오케스트리단 단장실, 음식관리 지배인실, 경리실, 복사실, 선전 및 홍보실, VIP실, 방문자실, 회의실, 인터뷰실, 감독실, 조감독실, 비서실, 화장실, 전산실, 도서자료실, 방제센터/방송실, MDF실, 의무실, 기자실
		일반관리부문	사무실, 경비숙직실, 청소원실, 중앙재어실/영선실, 영선창고, 주차 사무실, 시설관리 용원실, 관리실
	설비부문	기계실	기계실, 공조실, 소화기실 용기실, 오배수 정화실, 기계공구 창고, 설비기재창고
		전기실	전기관리 용원실, 전기실, 발전기실, EPS/TPS, UPS실, 전기공구창고, 전기기재창고
		공용면적	화장실, 복도 및 계단, 사워실, 휴게실

로비 등이 구성된다.

3) 공연지원부문; 극장의 중심이 되는 상연부문의 지원영역으로 서비스지원공간과 기술지원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서비스지원공간은 유지관리와 보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유지관리 공간에서는 세탁소, 의상/소품 수선실, 의무실, 수선 및 유지실, 미술실 등이 구성되고 보관서비스 공간에서는 의상, 소품, 악기, 무대비품, 좌석 창고와 악보자료실, 조명기기실, 음향기기실, 피아노창고, 도구창고로 구성된다. 기술지원공간은 공연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기술지원을 하는 공간으로 지원사무공간과 조정 통제 공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지원 사무공간에는 무대 감독실, 무대 조감독실, 무대 스텝실, 기사 대기실, 무대 경비실, 전기기사 작업실 등으로 구성되고 조정 통제공간은 통합 조정실, 엠프실, 디머실, 영상실, 사이드 조명실, 무대기계 조정실, 무대기계 판넬실, 투광실 등으로 구성되며 그 외의 지원공간으로 아니운서부스, 방송준비실, 녹음실, TV중계실 등으로 구성된다.

(3) 관리·사무 영역 (Administration Space)

관리·사무공간은 극장의 유지 및 극장의 전반적인 활동에 재정 및 조정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출연자 또는 직원을 위한 사무, 관객을 위한 서비스·경리·회계 등에 사용되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연출자, 무대 디자이너, 회의실, 홍보실과 인터뷰실 등이 포함된다. 이 영역을 세분화하면 공연관리부문과 일반관리 부문, 설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연관리부문; 공연관리를 위한 제반공간으로 극장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공간구성은 관장실, 오페라단 사무실, 오케스트라단 단장실, 오케스트라단 사무실, 음식관리 지배인실, 경리실, 복사실, 선전 및 홍보실, VIP실, 방문자실, 회의실, 인터뷰실, 감독실, 조감독실, 비서실, 화장실, 전산실, 도서자료실, 방재센터/방송실, MDF실, 의무실, 기자재실로 구성된다.

2) 일반관리부문; 일반관리부문의 사용자는 대부분 고용된 인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무실, 경비 숙직실, 청소원실 중앙제어실/영선실, 영선창고, 주차 사무실, 시설관리 요원실, 관리실 등으로 구성된다.

3) 설비부문; 설비부문은 기계실, 공조실, 소화가스 용기실, 오배수 정화실, 기계공구 창고, 설비기재 창고, 전기관리 용원실, 전기실, 발전기실, EPS, TPS, UPS실, 전기공구창고, 전기기재 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공연시설의 공간구성과 체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공연 공간 및 스페이스프로그램 분석

3.1. 분석사례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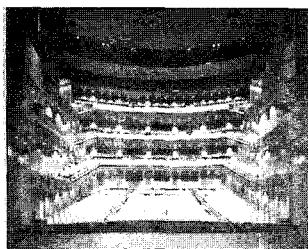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사례인 9개의 공연시설은 대부분 다목적 공연시설을 포함한 오페라 전용 공연시설이다. 70~80년대 한국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이었던 1978년에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2005년에 개관한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하고 있다. <표 2>의 분석사례 공연시설의 건축개요를 중심으로 최근 건립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

<표 2> 분석사례 공연시설의 건축개요

공연장명	개관연도	공연		규모			객석		무대		운영제작방식	전속 / 상주단체	
		시설	상연종목	건축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객석수	면적	면적	구성		
대구오페라하우스	2003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자히2층 지상4층	8,659	4,705	17,189.28	1,508	1,963.64	1,732.23	양측후 좌측후	논프로듀싱	-
대전문학예술의전당	2003	아트홀 양상볼홀	오페라 콘서트	자히2층 지상3층	100,066	13,411	40,774.00	1,522 655	1,502.52 701.40	1,788.48 783.60	양측후 좌측후	프로듀싱	대전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청소년합창단, 교향악단 (상주 4)
성남 아트센터	2005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자히2층 지상3층	109,811	10,045	31,616.28	1,805	1,757.18	1,502.82	양측후	논프로듀싱	성남시립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상주 4)
세종문화회관	1974	대공연장 소공연장	오페라 다목적	자히3층 지상6층	21,087	12,001	54,672.00	3,048 442	3,772.00 330.00	1,653.00 315.00	양측후 단일	프로듀싱	서울시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국단, 유 지컬단, 합창단, 무용단, 오페라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전속 9)
일산문화예술센터	2005	오페라극장 콘서트홀 실험극장	오페라 콘서트 다목적	자히2층 지상6층	43,121	8,229	33,912.75	2,056 1,526 350	2,375.37 1,456.02 184.68	1,608.20 258.06 423.40	양측후 양측 단일	-	-
예술의전당	1993	오페라하우스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오페라 콘서트 다목적	자히1층 지상6층	173,885	13,507	43,448.00	2,340 710 600	2,556.00 1,073.00 521.00	1,875.00 888.00 198.00	양측후 좌측후 단일	논프로듀싱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상주 2)
동경신국립극장	1997	오페라극장 중극장 소극장	오페라 다목적 다목적	자히3층 지상5층	25,500	19,489	68,879.00	1,814 1,038 468	2,012.90 589.20 349.70	2,763.60 1,454.40 349.70	양측후 양측후 단일	프로듀싱	-
바스티유오페라하우스	1989	오페라하우스모 듈러홀 윌팅극장 스튜디오홀	오페라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자히3층 지상8층	150,000	22,000	74,233.00	2,703 1,000 450 237	2,400,001.28 0.00 700.00 280.00	4,800.00 - 400.00 200.00	양측양후 단일 단일 단일	프로듀싱	-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	2006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지상5층	16,600	12,049	41,000.00	1,641 200	978.00	4,726.00	양측 양후	프로듀싱	덴마크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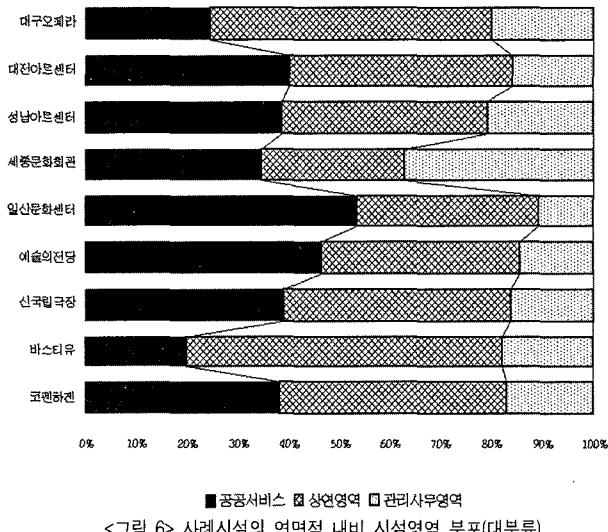
해보면 대부분 11,000평에서 20,000평 정도의 규모로서, 대도시의 경우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 드라마극장(연극장), 소극장 등의 조합에 의해 공연센터(퍼포먼스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국내 최초 단독 오페라 전용극장으로 공간구성과 구조를 보면 우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편의시설로 카페 및 매점과 같은 상연영역 중 관객부문에서 객석은 말발굽 형태이고 1500석의 규모로 프로시니엄 무대형식에 따른 시야확보를 위해 발코니를 구성함으로써 오페라 공연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단, 오페라 전용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속단체가 상주하고 있지 않고 제작공간의 확보가 미흡하여 자체 제작공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는 가장 최근에 건립된 오페라 전용 극장으로 우선 공공서비스 공간은 넓은 로비공간과 더불어 발코니와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연영역에서는 대형 오페라와 발레를 위한 대극장(1641석), 기타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소극장(200석) 등을 갖춘 대형공연장이다. 특히 무대시설은 주무대 주변에 5개의 보조무대가 있어 다수의 작품을 일정기간 내에 교대로 공연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은 1993년에 개관한 최초의 전문 공연장으로 특히 오페라 하우스는 종합 예술인 오페라의 상연을 위한 오페라 극장, 연극 전용극장인 토월극장, 실험적인 성격의 공연을 위한 자유소극장 등 3개의 전용극장을 갖춘 복합 공연시설이다. 그리고 동경신 국립극장은 오페라, 발레, 연극 및 새로운 형식의 무대 예술 상연 등을 주축으로 현대 무대 예술의 다채로운 공연사업을 비롯하여 공연자 및 무대 기술자의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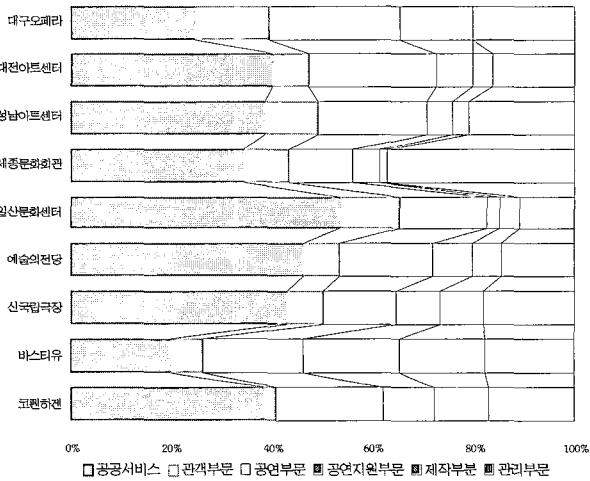


<그림 5> 동경신국립극장오페라극장

무대 예술에 관한 국내·외자료의 정보 수집 및 보존, 공개, 외국과의 교류, 지역문화 진흥 등의 다수의 사업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처음 실현된 국립극장으로 본격적인 전용극장의 형식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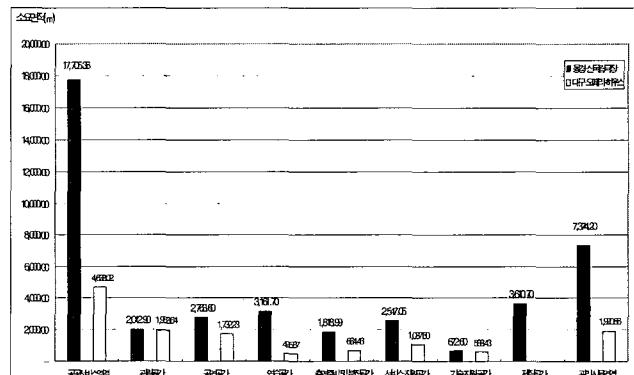
<그림 6> 사례시설의 연면적 내비 시설영역 분포(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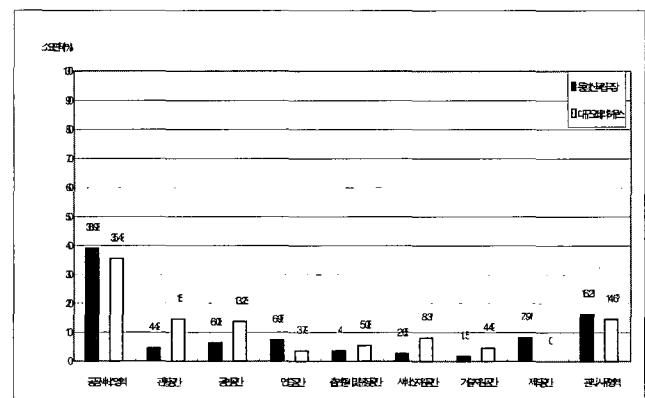
<그림 7> 사례시설의 연면적 대비 시설영역 분포(소분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오페라 하우스와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를 비교해보면, 우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단독 오페라극장의 성격으로 무대와 객석 중심으로 극장이 구성되어 있고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에는 타 극장보다 많은 무대(6면 무대), 다양한 공연지원부문과 더불어 별도 제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사무영역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 타 극장보다 그 비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속단체(9개)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극장의 제작방식에 따라 극장의 공간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자체제작의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반면, 동경신국립극장과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 양질의 오페라공연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제작 및 조립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의 경우에는 극장 자체에서 창작에 필요한 제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연의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동경신국립극장의 면적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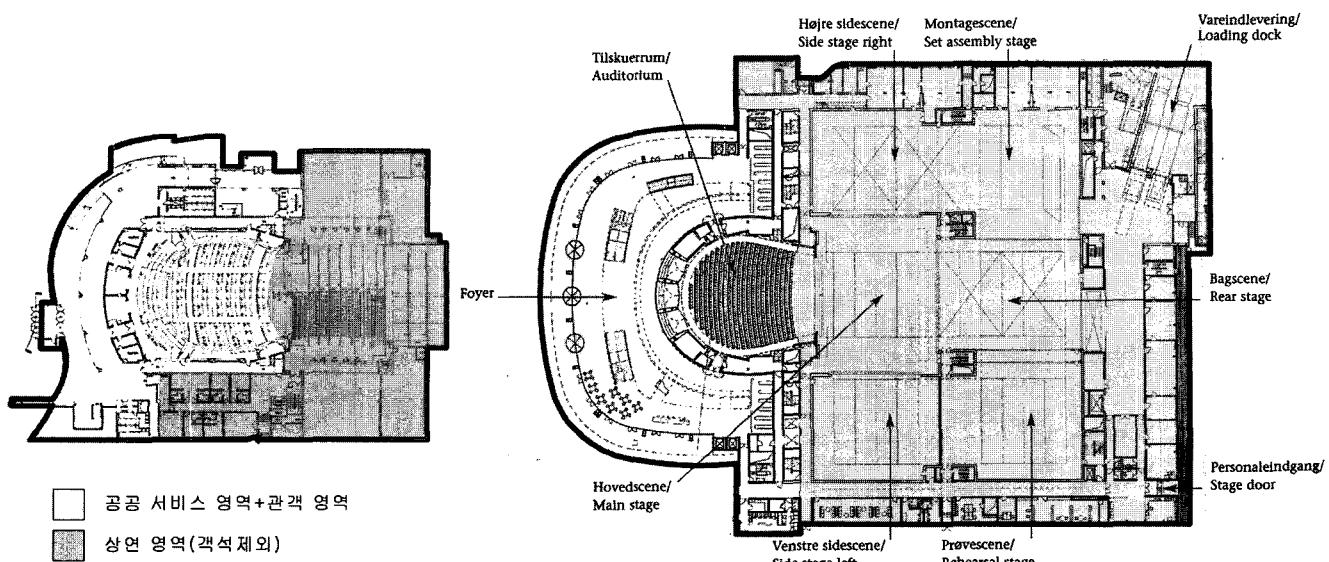


<그림 9>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동경신국립극장의 연면적대비 면적비를 비교 그래프

3.2. 공연공간의 스페이스프로그램 비교분석

(1) 연면적과 시설영역의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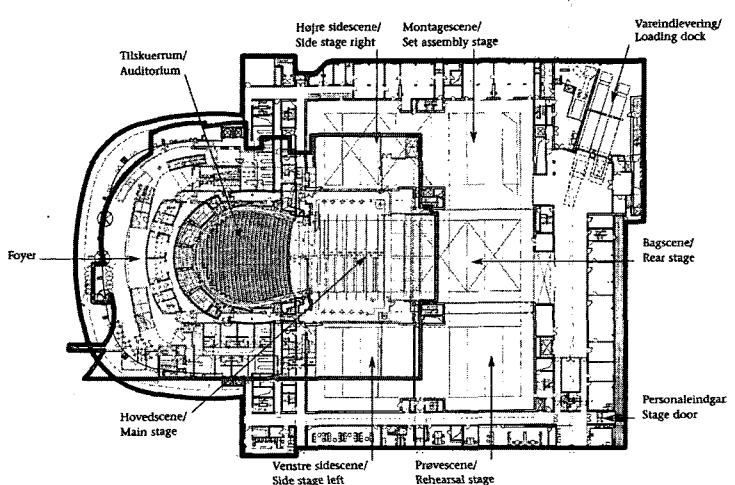
분석사례의 연면적 대비 각 시설영역을 살펴보면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에서와 같이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일산문화센터가 타 극장에 비해 높은 면적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체육센터 및 도서관 등 서비스 시설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며, 상연영역에서의 각 극장의 비율에 있어서는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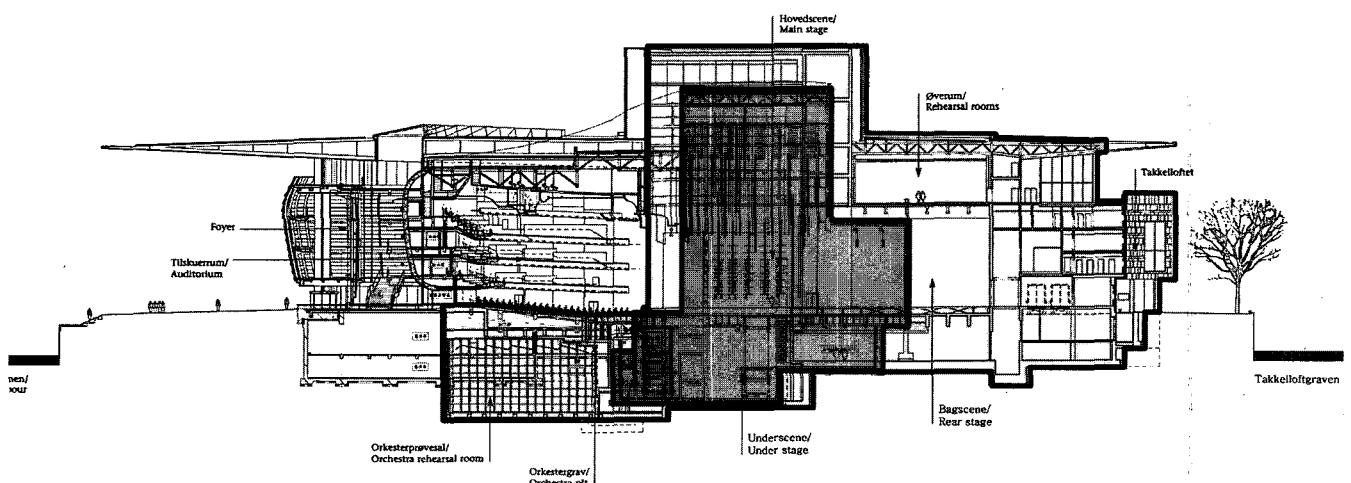
<그림 10>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의 동일스케일 평면도

<표 3>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의 면적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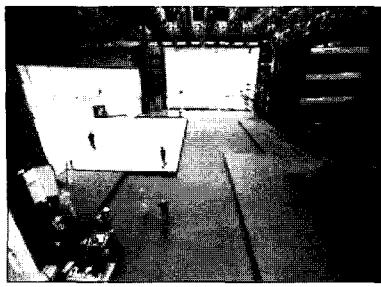
	대구 오페라하우스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	
	면적(m ²)	연면적 대비%	면적(m ²)	연면적 대비%
객석 부	860m ²	6.52%	978m ²	2.39%
무대부	1,375m ²	10.43%	4,726m ²	11.53%
지원시설	10,954m ²	83.05%	35,296m ²	86.09%
건축면적	4,705m ²	35.67%	12,049m ²	29.39%
연면적	13,189m ²	100.00%	41,000m ²	100.00%



<그림 11>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의 평면의 오버랩



<그림 12>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의 단면 오버랩



<그림 13>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 6면무대

동경신국립극장의 공공 서비스 영역과 관리사무 영역의 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 건물 내에 3개의 극장이 구성되어 이에 따른 3개 극장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한 <그림 8>, <그림 9>에서 두 공연장의 연면적당 각 영역에서의 비율의 차이는 각 영역의 비중을 표현하고 있다. 두 공연장의 객석 수는 대구오페라하우스(1,508석), 동경신국립극장(오페라극장 1,814)으로 객석수의 차이는 약 310석 정도로 전체적 규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면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연부문의 면적차이와 운영제작방식(Non Producing Theater & Producing Theater)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연부문은 객석이 포함되어 있는 관람공간의 면적을 제외하고는 두 시설 사이에서 가장 큰 면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Non Producing Theater로서 자체 제작 공간이 전혀 없는데 반해 동경신국립극장은 자체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서 소품, 배경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일련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서비스 공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지원공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장고나 분장·의상 사무실, 소품 유지실 등이 포함되어있는 서비스지원공간에서는 큰 면적차를 보이고 있다.

(2) 평·단면 및 면적구성의 비교분석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 공연장⁵⁾의 객석 수는 1,508석과 1,641석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객석부의 면적도 거의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공연장의 연면적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 도면과 <표 3>의 면적 비교표를 보면 두 공연장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무대부분과 무대 주위의 공연 지원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와 함께 차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Non Producing Theater 와 Producing Theater의 차이이다. 즉, 제작부문공간의 유무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도 Producing Theater로서 자체 제작공간을 가지고 있다.) 무대 부분의 차이는 각 무대의 면적차이에도 그 이유가 있으나, 무대 형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1개의 주무대와 2개의 측무대 그리고 1개의 후무대를 가지는 1+3의 Crucifix 무대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반해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는 1개의 주무대와 4개의

5) 두 공연장은 오페라 전용시설이면서 레파토리시스템이 적용된 사례(코펜하겐오페라 하우스)와 투어공연유치를 위주로 하는 사례(대구오페라하우스)로 이에 따른 공연지원부문의 공간적 차이를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다.

측무대 그리고 1개의 후무대를 가지는 1+5의 6조 무대 형식과 함께 다양한 무대격납고(Stage Storage)를 포함하고 있다. 공간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의 면적 비율은 객석과 공공서비스 영역의 면적비율보다 무대와 공연지원시설의 면적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객석과 공공서비스 부분의 면적비율이 무대와 공연지원시설의 면적 비율보다 더 큰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는 상반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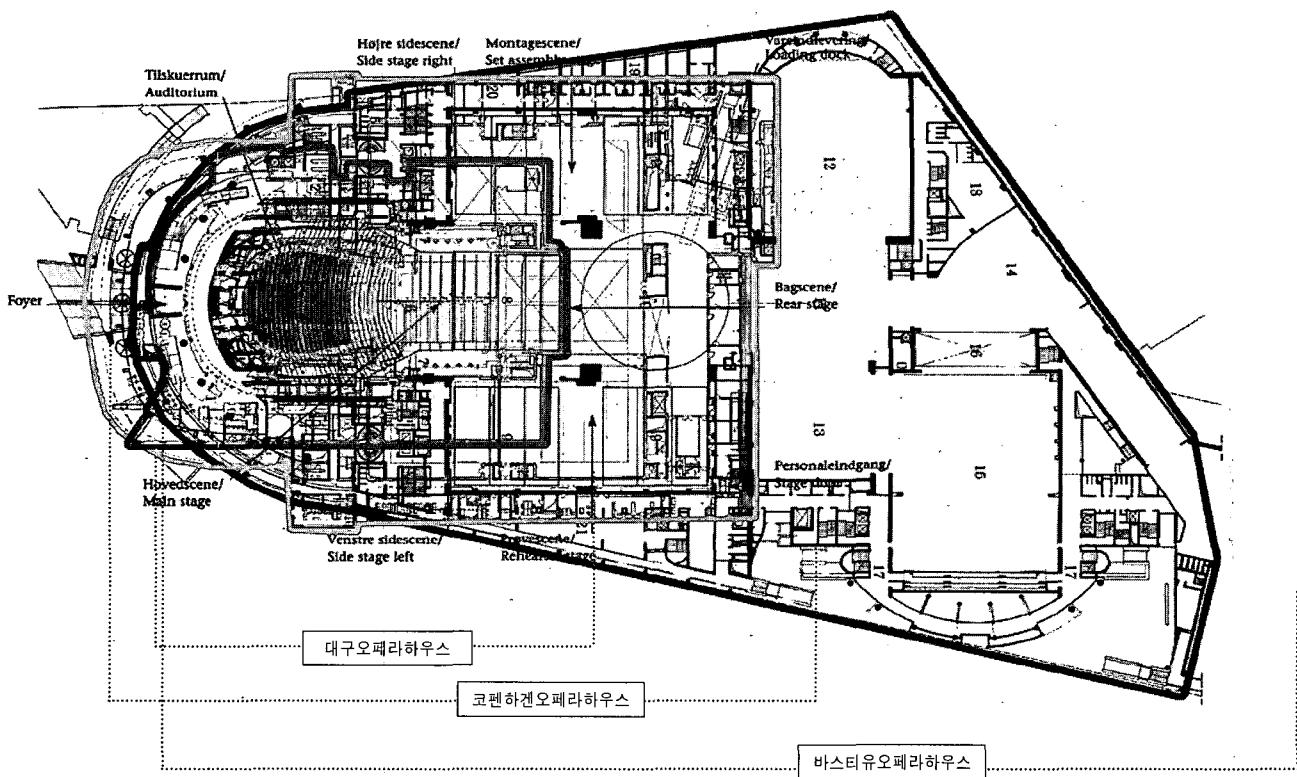
한편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의 단면을 같은 축척으로 비교해보면, 이 경우에도 무대부문과 공연지원부문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또한 상·하 무대 설비영역 차이가 크게 나며 이는 공연 무대의 기계시설과 조명시설·음향시설의 용적에서 오는 차이이다. 즉 공연장의 규모의 차이는 객석 수에 의해 비례하는 것보다 무대와 무대 주위의 공연지원시설의 세분화, 전문성의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경신국립극장의 경우 오페라극장 1,800석+중극장1,000석+소극장의 구성이며, Producing Theater와 Non-Producing Theater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면서 드라마, 연극, 콘서트용의 중극장 및 소공연장을 가지는 대·중·소의 3홀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코펜하겐의 경우 Producing-Theater의 성격이 강화된 오페라 전용극장으로 오페라1,600석+실험극장200석의 구성을 이루며, 일주일단위로 3종류의 다른 오페라공연물을 교대하여 공연이 가능하고, 창작 오페라공연물을 기획, 구상, 실험하여 완성시키는 제작 부문(레파토리시스템)이 핵심적인 기능을 이루고 있다. 한편 대구오페라하우스(1,500석),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1,600석), 바스티유오페라하우스(2,700석)의 평면을 오버랩할 경우, 객석부분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와 공연준비부문(지원시설)의 형식과 전문화, 세분화정도, 규모에 따라 전체 연면적(규모)의 차이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그림 14> 이는 Producing부분이 전체공연에서 어느 정도로 구성될 것이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보다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의 무대지원부문이 4배 이상의 크기이고,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보다 바스티유오페라하우스⁶⁾의 무대지원부문이 2배 이상의 규모임을 알 수 있다.

4. 종합고찰

본 연구는 전문적인 공연시설의 스페이스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국내·외 대표적인 공연시설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연시설의 공간구성과 구성 체계, 각 소요 공간별 면적구성비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6)바스티유오페라하우스는 무대세트를 완전히 자체 제작하여 여러 세트의 무대를 동시 격납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림 14>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 바스티유오페라하우스의 평면 오버랩

1) 공연공간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관람객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공공서비스영역(Public Space)과 공연공간의 중심이 되는 무대와 객석을 포함하는 상연영역(Performance Space), 그리고 출연자나 직원을 위한 관리·사무영역(Administration Spa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연시설사례의 분석결과 대부분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 소극장 등이 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건립된 사례(성남아트센터, 코펜하겐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전용공연장으로서 전문공연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분석사례의 스페이스프로그램의 구성비에서 주목할 점은 국내사례의 경우는 무대와 객석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국외사례에서는 공연지원부문과 제작부문에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운영제작방식(Non Producing/Producing)과 레퍼토리시스템의 유/무에서 오는 결과로, 공연장 규모의 차이는 객석 수에 비례하는 것보다 공연지원시설의 세분화 및 전문성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공연시설사례의 공간구성 및 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건립하게 될 공연시설의 공간적 규모와 공간의 조닝에 있어 프로듀싱씨어터와 레퍼토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제작지원공간의 공간적 확보와 세분화, 지원공간계의 유기적 연결 및 통합된 공유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연시설계획 시 적용 가능한 공간의 구성과 체계에 관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더 광범위한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공

연공간프로그램 및 공연기획·제작부문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임채진 외,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 야외음악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 2005.8
2. 임채진 외,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고양시, 2005.3
3. 임채진·김종성 외, 공연장 무대장치의 구성과 전환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호 2001.
4. 이태운·유길준, 한국 현대공연장건축의 무대와 객석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16권3호, 2000
5. 장기호,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6. 박동우, 무대기계(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교보문고, 2000.
7. 신일수, 극장상식 및 용어(무대예술전문인 가격검정 표준교재), 교보문고, 2000.
8. 건축세계(주), 신건축·용도별 작품집-문화시설/공연전시시설, 2000
9. 박철기, 극장·홀 건축설계자료실례집, 도서출판 보원, 1995
1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연예술총서Ⅲ 장치조명, 1981
11. 양정현, 공연제작(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교보문고, 2004.
12. Francis Reid지음, 박희태 옮김, 무대디자인입문, 에니, 1999
13. 小川俊朗, 劇場工學の舞臺機構, Ohmsha,
14. 小石新八, 劇場 - 舞臺美術概論, 兼六館出版株式會社, 1999.
15. A. Kelly, Thomas, Stage Management, Back Stage Books, 1999.
16. Allensworth, Carl. The Complete Play Production Handbook,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73.
17. Bieber, Margaret, The History of the Greek and Roman Theatre, Princeton, 1961
18. Aschehougs Danmarks Forlag A/S and the A.P.Møller and ChastineMcKinney Møller Foundation, OPERAEN THE OPERA, 2005
19.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객석관리 매뉴얼

<접수 : 2005. 12. 30>